

##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S/SBS
⑥ 20 관찰카메라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국모님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30 채널A 이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이침드라마 <질났어 정말>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이침
⑧ 10 퀘도난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밤>
⑨ 40 시사특급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엄마가 있는 풍경 미마도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0 좋은 아침
⑩ 5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00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5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45 SBS 뉴스
⑪ 50 뉴스 와이드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연애를 기대해(재)	00 주말특별기획 <스캔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⑫ 00 웰컴 투 돈월드(재)	00 KBS 갈작선 <학교 2013>(재)		00 MBC 정오 뉴스 20 우리기록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KJ비데 KBC 고등문 골프회(재)
⑬ 10 텅팅평평	00 KBS 뉴스 10 강연 100°C	00 문화의 달 갈작 다큐멘터리 <푸른지구의 마지막 유산 콜고>(재)	05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25 통일 전망대
⑭ 10 직언직설	10 글로벌 성공시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김민족 세상은 맞았지(재) 35 후토스 미니미니(재)	00 MBC 경제 뉴스 10 국군의 날 특집 다큐 신고합니다	30 엄마랑 놀라운 지구 한바퀴 스페셜
⑮ 00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기행진	00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기행진	00 구름빵(재) 30 TV 유원이(재)	00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기행진	00 중계방송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시기행진
⑯ 10 퀘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꼬마 신선 태오(재) 30 영상앨범 선(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페리에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이름다운 여행
⑰ 40 뉴스 현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시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20 브라보 멋진 인생	05 토크콘서트 <희봉>
⑱ 2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시처럼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늦은 날 주의보>
⑲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자신이면 김천>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1대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말 수백 향>	00 SBS 8 뉴스 35 KBS 8 뉴스 55 현장 21
⑳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소	
㉑ 00 모큐드라마 <싸인>	00 시사기획 창 50 디큐 공감	00 월화드라마 <굿 딕터>	00 월화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㉒ 10 명랑해결단(재) ①:2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2(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생활의 발견(재)	20 우리동네 예체능	20 PD수첩	20 홀린 마음을 지배하는 자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5 MBC 뉴스 24 25 MBC 100분 토론	40 나이트라인 ①:10 SBS 스페셜

EBS		EBS플러스 1		EBS플러스 2	
06:10 세계의 눈	〈김하진의 기울에 즐겨야 제맛나는 오리고구마! 허두조림과 가지 닭고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30 두끼 탐험대		
07:00 미술팀 험대	11:20 세대테마기행 <티카>	15:30 꼬마기복 크랭클린	20:00 EBS 뉴스	20:20 명의의 건강비결	
07:15 정글북	12:00 EBS 정오 뉴스	15:45 와콤와콤 친구들	16:00 당동당 유치원(재)	〈치아 건강, 치아 전문의 우이현교수〉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대지연의 유흥, 캐나다 서부 2부 -전설의 산사파리 찾기 찾아서>	
07:45 뿐통뿐뿐 뿐으로	13:05 지식채널e	16:45 숲 속 친구 피파풀라(재)	17:00 천히무적 한지 900	21:30 한국기행 <영주>	
08:00 당동당 유치원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시크릿 티키톡	17:00 망구대장 봉봉이(재)	21:50 EBS 다큐프리미엄 <빛의 물리학>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3:20 천히무적 한지 900	17:30 뽀통뽀통 뽀로로	17:45 블로터 구조대 뽀잉	22:45 정수의 비밀	
08:35 망구대장 봉봉이	13:30 꿀풀 꿀풀은 즐거워	18:00 미안미안 로봇	18:00 미안미안 로봇	23:15 세계의 눈	
08:50 금속 친구 피파풀라	13:45 바위와 친구들	18:15 점글북	18:15 지식채널e	24:05 세계명각장	
09:05 시계미을 터키도록	13:50 꿀풀 꿀풀은 즐거워	18:30 생방송 보니하니	18:30 세계명각장	24:10 세계명각장	
09:20 부모	14:00 편지우편 체리우스 박사님				
10:00 한국기행	14:15 텁기팅기 이이기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열려라 아비단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구설수를 조심해야겠다. 48년생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아 할 것이다. 60년생 흥사가 뒤따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때다. 72년생 재물로 인한 기쁨에 힘뻑 취하겠다. 84년생 끊고 맛음을 분명히 하자.  
행운의 숫자 : 82, 15

37년생 깊고 고요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49년생 달갑지 않은 것으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61년생 잘 살피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73년생 대체한 것이 더 나을 것이다. 85년생 확실히 지키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4, 66

38년생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50년생 근본 바탕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청된다. 62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겠다. 74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니라.  
행운의 숫자 : 18, 80

39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오히려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 51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63년생 협업해 왔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75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합침이 상서로움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03, 73

40년생 겉으로는 쉬워 보이나 깨다롭다. 52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64년생 폭 넓은 시야가 좋은 인연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76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30, 07

41년생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으리라. 53년생 평상시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65년생 기대했던 바에 의해 걸림돌들이 보인다. 77년생 상황 조정하여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도다.  
행운의 숫자 : 56, 31

10월 1일(음 8월 27일 庚子) 10월 1일(음 8월 27일 庚子)



42년생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야 손실이 없을 것이다. 54년생 열린 마음을 갖자. 66년생 침착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흥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78년생 모든 집착을 펼쳐버리고 재충전해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83, 86



43년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55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67년생 중복 되어 있어서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 하리라. 79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2, 89



44년생 흥의 기운이 사라지고 있도다. 56년생 흥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68년생 얼마나 실용적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80년생 끊임없는 연구가 지속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느라.  
행운의 숫자 : 38, 22



45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57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69년생 집착을 펼쳐 버리지 못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81년생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계속 진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6, 39



46년생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58년생 전방위적인 대처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70년생 상대의 말은 큰 의미가 없으니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아도 된다. 82년생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하라.  
행운의 숫자 : 21, 64



47년생 핵심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59년생 진실 되게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 방법이니라. 71년생 상대의 파격적인 변화에 주목하라. 83년생 학수고대 해왔던 바가 길사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3, 9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경! ☎010-9790-8237



## “광기로 헤매던 20대 그때로 돌아간 듯 연기”

영화 ‘화이’ 조폭 리더 석태役 김윤식

총무로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윤식 <사진>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장준환 감독의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를 통해서다.

5인조로 이뤄진 조직폭력배의 리더 석태 역을 맡은 그는 총을 몸 깊숙이 숨긴 유동한 총잡이처럼 마지막 한 방을 위해 넘실대는 에너지를 깊숙이 갈무리했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전후 문학 분위기의 연극들이 있습니다. 이오네스코의 작품이나 ‘동물원이야기’(E. 올비) 같은 것들이죠.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와 선과 악의 개념이 모호했던 작품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화이’는 (그런) 한 편의 연극과 같은 이야기이고, 굉장히 클래식입니다.”

‘화이’의 결포장은 화려한 액션과 장난기로 대체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시에는 굉장히 경험한 것입니다.” “‘화이’(2008) 이후 10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장준환 감독은 “한 호흡 한 호흡이 중요해 마치 외줄을 타는 듯 작업했다”며 “어떤 순간을 향해 가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 불리워졌다.

김윤식은 최근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의 연기파 배우로 대변되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작품이나 대본에 차운 배우”로